

농어촌공, 수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 본사본부 합동 전북 익산 수해 피해지역 지원으로 농가 시름 덜어 -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가 26일 전북 익산시에서 수해 피해 농가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6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수해 피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걷기, 농작물 수거 등의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 지역은 13일부터 18일까지 평균 457mm의 기록적 폭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이날 활동은 이병호 사장과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35명이 참여하여, 시름에 잠긴 수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손 돕기에 앞장섰다.

이병호 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전국의 지사·본부·본사가 전사적으로 복구지원에 나서 피해지역, 피해 농가가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경북, 충남, 충북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330여 명의 임직원이 12곳의 복구 활동에 동참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지역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총무부	책임자	부 장	송영수 (061-338-6041)
		담당자	대 리	현화경 (061-338-6048)